

“교회의 구성원들의 자질”

디모데전서 3:1-16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는 험한 바다의 등대와 같습니다. 사람들의 영혼이 파선되지 않도록 등대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도소 안에도, 병원 안에도, 학교 안에도 교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물을 이야기 하려면 아테네에 있는 파르테논신전이라고 하지만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신전은 바로 교회입니다. 왜냐면 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쓸 때는 기독교인이 많지 않았고 또 크고 아름다운 예배당도 없었고 그저 성도들의 집에서 모이는 가정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신전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집은 살아 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딤후 3:15) 멋진 예배당이 없고 성도들이 모인 집을 향해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교회를 지탱하는 것은 대리석 기둥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인 것입니다.

또한 이 땅의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에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집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과 연결된 집은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님의 피 값으로 사신 교회만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부터 조금도 오염되지 않은 정말 싱싱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곳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장소나 건물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모인 성도들의 회중이 성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디서든지 모이는 것이 중요하고 그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성전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되어 있고 기둥은 모두 진리의 말씀으로 되어 있으며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을 구성하는 벽돌과 같은 존재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교회를 이루고 있는 구성원이 어떤 자질을 가져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가 감독의 자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며,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딤후 3:1)  
 초대 교회 사도들은 각 교회에 감독을 세워 교인들을 돌보게 했습니다. 여기서 감독이란 바로 목회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 감독이나 장로란 바로 목회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감독은 교회에서

성찬을 집행하고 설교를 했으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중요한 직분이기에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말씀을 전하기 위해 애써야 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먼저 감독이 될 사람은 선한 일을 사모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목회자는 가장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생활이 깨끗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딤후 3:2-5)

본문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회 구성원인 목회자의 자질에 있어 가장 중요한 조건이 영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얼마나 신령하고 신유의 역사가 일어나며 전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가?’ 하는 것을 볼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철저하게 도덕성을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리 열심이 있고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도덕적인 잘못이 있으면 모든 수고가 한꺼번에 다 무너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가정 안에서도 사회 안에서 도덕적으로 건전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제 교회 안에 돕은 사람들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교회 구성원 중 집사의 자질에 대해 말씀 하고 있습니다. 집사는 헬라어로 디아코노라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봉사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즉 집사는 교회에서 몸으로 봉사하는 직분을 맡은 자들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집사의 직분은 교회의 동맥, 정맥과 같고 신경조직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구성원인 집사의 자질이 매우 중요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집사의 자질에 대해 짧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인박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이를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딤후 3:8-9)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딤후 3:11-12)

집사의 직분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은혜 받은 것이 너무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집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장소에 항상 나와야 합니다.

사도 행전에 7 집사를 뽑은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이 기준은 세상의 기준이 아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행 6:3)**

먼저는 성령이 충만이 가장 기본이 되는 자질이 됩니다. 교회는 학력과 경력을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성숙도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은 에너지 충만이고 에너지 충만이 곧 성령충만입니다. 성도들은 항상 자신의 영적 에너지 상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기도, 말씀, 그리고 찬양 그 무엇이 되었든 자신의 에너지를 충만한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하자 옥문이 열리는 기적을 맞보았습니다. 그때 그들의 에너지 상태가 최고조에 이른 상태였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매 죄수들이 들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행 16:25-26)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고 믿음의 열정이 있는 사람들과 우리는 교제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의 에너지가 잿더미 같던 마음을 불 붙은 마음으로 변화시키게 됩니다. 열정은 반드시 전염되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멈추어야 할 때 멈출 수 있는 사람입니다.**

빌립집사가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부흥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더 힘든 것은 그 일을 중단하고 다른 곳으로 가라고 하실 때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역에 한참 불이 붙었는데 하나님께서 난데없이 '사막으로 가라' 고 명령하셨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행 8:26)** 이에 빌립은 중단하고 광야로 갔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다르다고 해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중단하고 가는 것 이것이 성령충만입니다. 성령충만한 사람과 아닌 사람의 구분할 수 있는 것은 Go 할 때가 아니라 Stop 할 때입니다.

**성령충만한 사람은 지혜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분별력 있는 사람, 사리 판단할 수 있는 사람, 할말과 안 할 말을 가리는 사람, 그리고 문제를 지적하기 보다는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성령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충만하면 지혜가 충만해 집니다. 왜냐면 성령은 지혜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늘 사모하고 기도와 말씀에 힘써야 합니다. 성령충만은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충만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 것은 죄인 것입니다. 교회에서 쓰임 받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을 항상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충만한 사람은 칭찬 받는 사람입니다.**

초대교회의 특징은 자격을 갖춘 사람이 아니라 이미 자격이 된 사람을 집사의 자질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한 사람에게 엄청난 축복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 (딤후 3:13)** 그렇기에 하나님 앞에서 집사의 직분은 매우 큰 것입니다. 큰 믿음의 담력을 얻게 되어 기도의 능력과 축복의 능력과 큰 부흥의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계 2:10)**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딤후 4:6-8)**

## 나눔의 시간

1.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교회 구성원의 자질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구성원의 직분 중 목회자, 집사의 자질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우리 위싱턴성광교회의 구성원으로 어떤 직분(봉사, 사역)을 가지고 있나요?
2.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겨주신 직분(장로, 권사, 집사, 성도)이 있습니다. 내가 잘 감당하고 있는 점들과 부족한 점들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예, 성령과 지혜의 충만, QT, 예배생활 등)
3. 교회 구성원의 자질 중 감독 곧 목회자의 자질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목회자는 선한 일을 사모해야 하며 절제하며 신중하고 단정해야 하며 가정에 충실해야 하는 자질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 담임목사님과 사모님, 부교역자들, 그리고 각 교육부서 사역자들을 위해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